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성화 계획 - 가평군 운악산 포도향 권역을 대상으로 -

김영택 • 이상창* • 강은지** • 김용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The Activating Plan of Rural Village through the Native Resource Application - Focused on the Gapyeong-gun Unaksan Grape regions -

Young-Taek Kim • Sang-Chang Lee* • Eun-Jee Kang** • Yong-Geun Kim***

Ms. Student,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Ms. Student,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Ms. Student,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a space planning of rural villages having been connected by small-regions units as a plan of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cultivating native resources located in rural areas and then developing them. As research methods, this study carried out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study at the same time, and then was progressed to directions of deducing a basic plan by applying alternatives to actual object sites based on the results. Endogenous developments of areas through native resources' developments have been emphasized in Korea recently, and various policies and strategies are being appeared for making regional economic growth under these recognitions. However, rural village planning has directed to physical maintenances centering on functionality till now, and composed of facility repairs and experience projects of urban-rural interchanges mostly so as to solve living environments between cities and agricultural villag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pose discrimination with existing rural village planning, and set up a growth plan of rural villages by cultivating and developing tangible and intangible native resources having been kept in the rural villages and then commercializing them centering on indigenous native resources.

Key words : regional economic growth, endogenous development, rural tourism, promotion of grape industry, grape theme village, eco tourism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농촌은 1950년대 말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1970년까지 시행된 '지역사회개발사업'과 '시범농촌건설사업'을 시작으로 80년대 초까지는 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통해 자급자족적인 농업에서 사업적인 농업으로

로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후에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조성과 마을단위 개발사업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주택 및 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행정과 주민의 노력이 집중되었다(방한영, 2003).

하지만 관(官)주도 사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편의와 효율성 측면을 중시하고, 물량위주의 개발 방식을 지향한 나머지 현재 농촌이 처한 문제, 즉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다양한 방면에서 도시와의 상대적인 격차, 낙후 등의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를

Corresponding author : Yong-Geun Kim

Tel : 02-2210-2644

E-mail : ygkim@uos.ac.kr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능동적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와 같이 농촌지역이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산업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자생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종래의 하향적(下向的), 인프라 지원 위주의 발전전략에서 탈피하여 상향적(上向的), 내생적(內生的) 발전전략이 요구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색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 개발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이한기·박덕병·박은식, 2002; 김현호·한표환, 2004).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산업, 일본 카츠누마정 포도·와인산업 특구 등이다. 이들 사례는 지역적으로 특화된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소득기반을 두고 다양한 혁신요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를 통해 낙후된 농촌지역의 활성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특색 있는 향토자원과 제반여건을 고려한 지역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향토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써 소권역단위로 연계된 농촌마을의 공간계획(space planning)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 군, 면, 마을단위의 개념이 아닌 동일 생활권·영농권으로 주민 간의 유대감을 갖는 인근 3~5개 마을로 구성된 소권역 단위로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농촌마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향토자원의 개념

‘향토자원’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 부존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향토(鄕土)란 ‘고향의 영토’ 혹은 ‘고향의 흙’을 지칭하고,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개인 정서와 생활체험이 가미된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신혜진(2008)은 향토자원을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향토적 특

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유무형의 자원’ 또는 ‘인간이 정착한 지역의 자연 여건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문화적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여기에는 크게 자연적인 자원과 문화적인 자원 그리고 최근 여가문화 발달로 고려되는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휴양자원이 포함된다(안덕초, 2007; 여화선 등, 2008; 윤영운, 2006).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6)는 향토자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향토적 전통성과 고유성을 가진 자원으로 시·군·구 지역 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있는 모든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한 향토자원의 중요한 개념요소로는 지역성, 고유성, 경제성을 들 수 있으며 고유성은 지역 차별화 측면에서 중요한 우위요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유성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전통성에 의해 발현 될 때 복제가 어려운 지역적 차별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성과 고유성을 핵심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에 있어 향토자원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더해져 자산의 의미로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향토자원은 향토라는 의미가 내포하듯이 무엇보다 자원의 역사적 전통성과 지역적 차별성, 기술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지역의 배태성이 내재되어있는 자원이어야 한다.

기존 문헌들을 통해 볼 때 향토자원은 대도시를 제외한 농산어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최대 존재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반영운 등, 2010). ‘향토’라는 말이 ‘고향의 땅’이란 정서적 측면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도시 지역을 ‘향토’라고 부르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공간적 범위 한정에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사항으로는 반드시 향토적 특성이나 고유성을 포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농림부, 2004). 이처럼 향토자원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향토자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원을 ‘타 지역과 차별되는 향토성을 가진 자원으로 생활권·영농권으로 주민간의 동질성 및 유대감이 형성되는 일정 범위의 공간 내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향토성이란 지역성, 배태성, 기술성, 인지성, 경제성 등 5가지 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5가지 요소는 향토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요소라 할 수 있다.

2. 향토자원의 특성과 유형

1) 향토자원의 특성

향토자원은 입지 비대체성, 배태성, 전통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현호·한표환, 2004; 신혜진, 2008). 첫 번째 입지 비대체성은 특정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속성, 지역적 편재(偏在)성을 지칭한다. 두 번째 배태성은 특정한 지역의 역사나 문화, 삶 등에 체화된 속성을 지칭한다. 이것은 향토자원이 특정한 지역에 뿌리내리고 존속되어 올 수 있는 착근의 근거로써 특정지역의 생활습관이나 전통기술, 삶 등 향토자원의 전승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특수한 지역적 환경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전통성은 특정 지역사회에서 상당 기간 체득, 계승되어 온 속성을 지칭한다. 독특한 생활양식이나 관습, 기술, 조업방식 등에 내재돼 전해 오는 역사성인 셈이다.

2) 향토자원의 유형

향토자원은 자연·생태자원으로부터 인문·사회자원, 보이는 자원에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자원, 제품화 자원에서 관광화자원 등 다양하고 많은 유형화가 가능하다. 김현호와 한표환(2004)은 대표적인 향토자원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4가지 유형 중 첫 번째는 자원의 형태에 따라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역사·문화유적, 경관이 빼어난 장소, 유명 인사의 생가, 토종 동·식물 등이 유형자원에 속한다. 반면 무형자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기술이나 지식, 풍속 및 민담, 지역축제, 음악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개발주체에 따른 유형분류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주체가 되는 자원, 기업이 개발 주체가 되는 자원, 시민이 개발주체가 되는 자원으로 분류한다. 근래에는 이러한 주체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지역주민·기업·행정이 협력하여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자원의 내용에 따른 유형분류로 산업적 자원, 역사·문화자원, 생태·자연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적 자원은 산업의 소재가 되거나 상품에 투입되는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자원, 역사·문화자원은 역사 및 문화의 소산이 되는 자원, 생태·자연자원은 생태 및 자연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 하겠다.

네 번째 활용목적에 따른 유형분류로 경제 활성화, 자원보전 및 재생,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경우는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인 경우이다. 향토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원의 활용이라든지, 매력도를 증가시켜 관광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는 경우의 자원 활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7)에서는 산업화 패턴 등에 따라서도 향토자원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산업화 패턴에는 가공하지 않은 원형의 소재를 활용하는 1차 자원, 가공·제조한 2차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활용하는 3차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서로 유기적으로 융·복합한다면 6차 산업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과정

1. 연구 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대상지인 경기도 가평군 상면 운악산 포도향 권역은 울길 1, 2리와 봉수리로 구분되며, 상면의 전체면적 10,069ha 중 20.9%를 차지하고 있다(가평군, 2007). 대상지는 운악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농촌마을로써 지역의 주요 농산물은 전체면적의 80%인 포도(campbell early)가 농가의 주종이자 주요 소득원이다. 특히, 전국최초 100% 비가림재배 방식 도입과 최적의 포도재배 환경으로 인해 전국 최고의 고당도 포도(16 ~ 18°Bx)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품질인증 제도인 ISO9001(국제표준화기구)을 획득하였다. 또한 가평운악산 포도울길영농조합의 포도가공 농산물인 포도즙은 미국 FDA승인,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운악산 포도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는 양호하나 대부분의 농가소득은 아직까지 국도변 가판대식 직거래를 통한 포도원물 위주의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농가소득의 주요 장소였던 국도 37호선이 확장되어 신설됨에 따라 관광객의 유입패턴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운악산 포도향 권역은 포도생산과 더불어 수변 및 산림자원이 조화되어 생태적으로 경관이 수려한 환경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들이 서로 연계된 권역단위의 농촌마을계획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간의 친밀함과 협의체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바 본 권역은 전통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으로 형성되었고, 대물림식 포도를 재배하는 영농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학연, 혈연으로 이어져 이웃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지로 평가되었다(Figure 1).

2. 연구의 구성

Table 1 연구의 방법 및 과정

구분	연구내용	비고
문헌 연구	· 향토자원의 정의 및 특성 파악, 유형의 분류	향토자원 조사표 구축
	· 향토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 방안 고찰	
	▶ 기존 농촌마을 조성계획과 차별화된 향토자원 중심의 계획접근 방법 모색	
실증 연구	· 현장조사 전 문헌자료를 고찰을 통한 대상지 여건 분석	향토자원 조사 · 발굴 및 대상지 여건분석
	· 현장조사를 통한 향토자원 발굴 및 자원화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마을 활성화 계획을 위한 주민의식조사 실시	
	▶ 현장조사 시 지형도(1/5,000), 항공사진, 향토자원 조사표 등을 활용	
종합 분석	·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종합하여 분석 후 기본방향 및 기본구상을 제안	종합구상도 작성
	▶ Autocad, Photoshop, Illustrator를 활용하여 도식화

Figure 1 연구 대상지.

IV. 연구 대상지 분석

1. 향토자원 개발 및 자원화 분석

1) 조사 개요

권역별 주요 향토자원 조사는 2010년 8월 10일~11일에 본 연구의 대상지인 포도향 권역의 울길리와 봉수리를 직접 방문한 후 향토자원 세부조사표를 이용하여 각 마을이장 및 지역원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운악산 포도향 권역 내 소재하고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현황을 분석 후 농촌마을 활성화 계획 시 다양한 가치적 측면에서 자원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2) 향토자원 발굴과정

Figure 2 향토자원 발굴 과정 및 조사방법.

3) 향토자원에 대한 분석기준 설정

향토자원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설정은 선행연구를 통해 향토자원의 유형을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농업경제자원, 공동체 활동자원으로 분류하였고, 향토자원이 가져야 하는 속성으로 지역성, 배태성, 기술

성, 인지성, 경제성 등 5가지를 기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각 항목당 기준에 적합한 자원에 1점을 부여하고, 총 5점 만점으로 기준표를 작성하였으며 설정된 기준에 맞춰 각 자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울길리 향토자원 분석

울길리 향토자원에 대한 분석 결과 울길리를 대표하는 향토자원으로는 포도생산단지가 채택되었으며, 권역별 농촌마을 활성화 계획시 울길리는 포도산업을 개발의 축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2).

5) 봉수리 향토자원 분석

봉수리의 향토자원 분석 결과 자연·생태자원인 운악산(아기봉)과 봉수천, 농업경제자원인 포도생산단지가 봉수리를 대표하는 향토자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울길리

에 비해 봉수리는 포도산업보다 자연·생태적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권역별 농촌마을 활성화 계획시 봉수리는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농촌휴양단지를 개발의 축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Table 2 울길리 향토자원 기준표

분류	자원명	기준항목					
		지역성	배태성	기술성	인지성	경제성	최종값
자연 생태	① 십이탄천	1	-	-	1	1	3
	② 솔안천	1	-	-	1	1	3
	③ 보호수(소나무)	1	-	-	1	-	2
역사 문화	④ 송안경씨 제실	1	1	-	-	-	2
	⑤ 빨래터(우물)	-	-	1	1	-	2
	⑥ 상여집	1	1	-	1	-	3
농업 경제	⑦ 포도(생산단지)	1	1	1	1	1	5
	⑧ 동양란 하우스	-	-	1	1	1	3
	⑨ 서양란 하우스	-	-	1	1	1	3
공동체 활동	⑩ 체험센터	1	-	1	-	1	3
	⑪ 정보센터	1	-	1	-	1	3
	⑫ 포도즙가공공장	1	-	1	-	1	3
	⑬ 포도산지유통센터	1	-	1	-	1	3
	⑭ 상품브랜드	1	-	1	-	1	3

Table 3 봉수리 향토자원 기준표

분류	자원명	기준항목					
		지역성	배태성	기술성	인지성	경제성	최종값
자연생태	① 윤악산(아기봉)	1	-	1	1	1	4
	② 병풍바위	1	-	-	1	-	2
	③ 밤나무 군락지	1	1	-	-	1	3
	④ 노거수(참나무)	-	1	-	-	1	2
	⑤ 봉수천	1	-	1	1	1	4
역사문화	⑥ 지명유래	1	1	-	1	-	3
	⑦ 빨래터(우물)	-	-	1	1	-	2
농업경제	⑧ 포도(생산단지)	-	1	1	1	1	4

2. 자연 · 생태 및 인문사회 환경 분석

Table 4 대상지 개발여건 분석

조사항목		현황종합	잠재력 및 문제점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접근성 양호(약 40km) • 37번 국도 확장, 신팔~청평간의 도로 준공으로 접근성 향상됨 • 노변 가관식 소득변화에 대한 필요함 • 신 37번 국도 확장, 관광객 유입 경로 변화를 예측한 공간계획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37번 국도변 공터 포도산지유통 센터를 축으로 판매 및 홍보, 편의 시설 계획 • 구 37번 국도 재생 방안으로 포도 축제 및 수변생태거리 조성
자연 · 생태	기상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지방에 위치한 대륙성기후 • 평균기온 11.4℃, 강수량은 1,513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가 자라기 적합한 지리적 여건 • 포도성장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질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질은 대부분 호상편마암 분포 • 토양은 사양토, 양토로서 경작지로 이용되며 생산력도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산지형 농촌마을 입지형태 • 포도 생산에 알맞은 토양(배수양호, 적합한 토양층 형성, 비바람 유실 적음)
자연 · 생태	지형 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표고 360m, 고랭지 지역임 • 평균경사 20.8°, 완경사 51.8% • 남동향, 남서향, 남향이 3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재배지와 연계된 자연휴양림 조성 • 남향이란 지리적 요건을 적극 활용 • 지형을 고려한 시설배치 계획
	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안천: 삼광조, 맹꽁이 등 서식, 생태적으로 환경이 잘 보존됨 • 십이탄천, 봉수천은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교육 및 수변여가 공간으로 활용 • 하천경관이 매우 수려하고, 동·식물 서식처 역할로써 연속성 유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경관: 윤악산(아기봉), 개주산, 잣나무림, 봉수리 병풍바위 • 하천경관: 술안천, 십이탄천, 봉수천 • 농업경관: 포도, 난, 벼, 기타 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 길에 마차 및 자전거 코스 계획 • 윤악산을 권역의 landmark 활용 • 주요 지점에 전망 및 휴게공간 조성, 이용자에게 수려한 경관제공
	식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잣나무림이고, 기타 소나무림, 밤나무림, 낙엽송 등 다양한 수종 분포 • 면 보호수: 소나무(약 400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가 있는 생태탐방 코스 개발 • 피톤치드 산림욕 코스 개발 • 면 보호수 등은 생태교육자료 활용
인문 · 사회	토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대부분이 토지를 포도생산에 이용함 • 대부분 평지에 생활권이 형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37호선의 확장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를 적극 활용 • 국도변 유희공간과 시설 적극 활용
	지역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중 전체면적 80% 이상이 포도산업임 • 기타 농산물 동 · 서양난, 벼, 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를 테마로 각종 시설 계획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포도테마관광 권역으로 발전 가능
문화 ·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악산 포도축제 운영 중단상태임 • 주변관광자원: 현등사, 아침고요 수목원, 청평 자연휴양림 등 • 송안경 제실, 상여집, 빨래터 등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축제 부활을 통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권역 홍보를 통한 지역 이미지 고취 • 주변 관광자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역사·문화 체험·교육장으로 활용

3. 주민의식 조사 및 분석

주민의식조사를 위한 선택형 설문조사는 포도향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평군에서 실시한 설문내용(142가구 대상)을 참고하였다. 미흡한 부분은 추후 약술형 설문조사로 보완하여 2010년 8월 10일~11일에 마을이장과 지역원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민의식조사 결과 주민연간소득은 1,000만원 이하가 16.2%, 3,000만원 이상은 34.4%로 나타나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았다. 지역생활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84.6%)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 이유는 '생활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소득수준과 전반적인 만족도와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만족수준을 높일 방안으로는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포도향 권역의 발전유형을 주민들은 '농업과 관광이 연계된 마을'과 '친환경 농업마을'을 발전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의 주요향토자원인 포도와 자연·생태자원을 테마로 도입시설 및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권역이 보유한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친환경 농촌관광마을로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설문결과에서도 이미 주민들은 권역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지리적 특성과 재배기술의 차별성을 가진 포도와 수려한 자연·생태환경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농촌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권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토자원을 통한 농촌테마마을이 연계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또한, 신설된 37번 국도의 확장 및 교통이용 불편에 따른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부분도 활성화 계획 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4. 분석의 종합

이상으로 분석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바탕으로 포도향 권역이 갖는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요인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권역이 갖는 약점과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방향을 도출하였다(Figure 3).

VI. 농촌마을 활성화 계획

1. 향토자원 특성에 따른 소권역 구분

운악산 포도향 권역의 향토자원 개발 및 자원화 분석과 계획의 여건분석을 통해 향토자원 특성에 따른 농촌마을 활성화 계획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권역을 구분하였다(Figure 4).

Figure 4 운악산 포도향 권역 소권역 구분도.

Strengths (강점)	Weaknesses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과 접근성 양호(약 40km, 1시간 내외) 30-50대 젊은 인적자원이 풍부 수변과 산림이 조화된 환경적 특성을 가짐 경쟁력 있는 특산물 고품질 포도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도판로의 한계(가판을 통한 직거래) 향토자원(ex. 포도+자연경관) 연계성 약화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빈약 군부대로 인한 마을경관 훼손
Opportunities (기회)	Threats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체험을 위한 방문객 수요증가 가평군의 친환경적 생태환경 이미지 높음 유기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 각종 지원정책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농촌관광분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7번 국도 신설로 노변 포도판매 체계 붕괴 수입농산물 증가 획일적인 농촌체험마을 증가 펜션 등의 증가로 농촌의 이질적인 경관 확대

Figure 3 SWOT분석.

2. 권역별 테마설정

1) 포도테마 소권역 테마설정

포도테마 소 권역의 공간계획을 위한 기본개념은 지역의 향토자원인 포도를 중심으로 6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테마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도자원을 통한 6차 산업이 가능하도록 포도테마 소권역의 공간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도입 시설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Figure 5).

Figure 5 포도테마 소권역 테마설정.

2) 생태관광 소권역 테마설정

생태관광 소권역의 공간계획을 위한 기본개념은 수려한 산림자원과 수변자원을 연계한 건강·휴양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테마를 설정하였다(Figure 6).

3. 권역별 기본구상

1) 포도테마 소권역 잠재력 도출 및 공간구상

포도테마 소 권역 주변 토지는 주거시설, 공공시설, 포도생산단지, 동·서양란 하우스, 기타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산림이 권역을 둘러싸고 있다. 한편, 구 37번 국도변은 현재 포도 판매를 위한 가판대식 직거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신 37번 국도의 완공이 예정되어 있다. 신 37번 국도가 완공되면 방문객 유입경로가 변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판매체제

또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포도테마 소 권역은 크게 3가지로 개발의 잠재성을 띠고 있다(Figure 7). 첫째, 권역의 대표 향토자원인 포도생산자원을 테마로 체험 및 관광이 연계된 마을로서 조성할 수 있다. 둘째, 구 37번 국도변의 유희공간을 중심으로 포도축제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를

Figure 6 생태관광 소권역 테마설정

제고시킬 수 있다. 이때, 권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방문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등 매년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포도축제거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신 37번 국도변은 권역의 중핵공간으로서 국도 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 방문객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교류 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의료서비스 등 지역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상 3가지 발전 잠재성을 통해 본 결과, 포도테마 소권역은 충분히 향토자원을 통해 6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도테마 소권역은 공간구상 시 테마설정, 주변 토지 이용, 잠재성,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여 A~D ZONE으로 공간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Figure 8). A존은 포도테

잠재력	내 용
첫째	포도를 테마로 농촌체험 및 관광이 연계된 마을 조성 가능
둘째	구 37번 국도변 유휴 공간을 중심으로 포도축제거리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셋째	신 37번 국도변을 방문객 휴식, 도농교류, 주민 편의 공간 등 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거점
종합	향토자원(포도) 개발을 통한 6차 산업 성장 가능

Figure 7 포도테마 소권역 잠재력.

Figure 8 포도테마 소권역 공간구상도

잠재력	내 용
첫째	운악산을 생태체험 · 관찰학습 · 산림욕 등 생태회랑으로 개발
둘째	봉수천을 운악산 생태회랑과 연계한 수변여가 · 생태, 문화 공간 개발
셋째	자연경관 및 기타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건강휴양마을 조성
종합	자연 · 생태자원을 통한 친환경 농촌휴양마을 계획

Figure 9 생태관광 소권역 잠재력.

마을로서 포도를 테마로 다양한 공예품 등 가공 상품 개발과 포도 관련 체험 및 관광이 이뤄질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한다. B존에는 포도경관단지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포도테마 지역으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잣나무 숲과 연계한 포도 트레킹, 산책로와 단지 곳곳에 전망대 및 쉼터, 포토존 등 주변을 다양하게 조성해 방문객 흐름을 유도한다. C존은 구 37번 국도변을 포도축제거리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한다. 이때, 국도변 유희 공간을 활용해 축제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십이탄천, 동·서양란 하우스, 울길초등학교, 마을회관을 함께 이용해 포도축제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D존은 신 37번 국도변 공터를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식 공간, 방문객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 복지 ·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농교류를 증진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한다.

2) 생태관광 소권역 잠재력 도출 및 공간구상

생태관광 소권역의 주변 토지는 주거시설, 공공시설, 포도생산단지, 기타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운악산 밑자락 봉수천을 축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매우 쾌적한 농촌마을이다. 생태관광 소권역은 크게 3가지의 개발 잠재성을 띠고 있다(Figure 9). 첫째, 운악산 탐방로를 생태체험 · 생태탐방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회랑으로 개발하는 등 숲을 이용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할 수 있다. 둘째, 생태관광 소권역의 대하천 축으로 수변자원인 봉수천을 운악산 생태회랑과 연계하여 산책로, 자전거 도로, 수변무대, 수변데크, 쉼터 등 수변여가공간으로 개발하며 하천주변 비선호 시설은 정비 · 개선을 통해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운악산 자연휴양림과 봉수천 수변여가 및 생태, 문화공간 등 수려한 자연경관 및 기타 자원을 연계하여 방문객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체류형 건강휴양마을로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펜션 및 숙박시설보다는 클라인가르텐과 같은 특성 있는 휴양시설들을 도입하여 농촌생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3가지 개발 잠재성을 통해 생태관광 소권역은 수려한 산림자원과 수변자원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농촌휴양마을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관광 소권역 또한 테마설정, 주변 토지이용, 잠재성,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여 E~G ZONE으로 공간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Figure 10).

생태관광 소권역 E존은 체류형 건강휴양마을로 운악산과 봉수천 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조화된 농촌휴양마을로 조성한다. 농촌생활과 문화를 체험하며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장,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친목도모 및 체력단련, 건강을 위한 다목적 체육공원, 스파, 전원생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농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체재형 주말농장 등의 시설을 도입하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F존은 운악산에 생태회랑을 구축해 자연휴양림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운악산 생태회랑의 코스는 생태탐방, 자연체험 · 관찰학습 · 피톤치드 산림욕, 전망대 및 쉼터, 체육시설지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흥미 있는 주제 탐방로를 구축한다.

G존은 봉수천을 중심으로 수변여가 및 생태, 문화거리로 조성한다. 하천을 따라 주제별 수변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책로, 자전거 도로, 수변무대, 수변데크, 수변갤러리, 쉼터, 수변 생태체험장 등을 다양하게 조성한다.

4. 운악산 포도향 권역 종합구상도

소권역별 테마와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운악산 포도향 권역의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종합구상도는 다음과 같다(Figure 11).

VII. 결 론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대부분은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관계로 향후 자생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과거와 같이 농업중심의 투자만으로는 현재 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농촌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촌마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물리적 정비계획과 함께 마을이 지닌 고유의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종합적 계획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지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의 운악산 포도향 권역(울길리와 봉수리)이었으며, 농촌마을 활성화 계획을 위해 먼저, 포도향 권역의 지역여건과 향토자원 조사표를 활용하여 향토자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토자원조사 는 현장조사와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향토자원 평가 후 울길리와 봉수리의 주요 향토자원을 선정 하였다. 울길리의 경우 주요향토자원은 포도자원이며, 봉수리는 자연·생태자원을 주요향토자원으로 선정하여 자원특성에 따라 소 권역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테마를 설정하였다.

울길리는 주요 향토자원인 포도를 중심으로 6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테마를 설정하였으며, 봉수리는 생태관광 소권역으로 수려한 자연·생태자원을 연계한 건강·휴양마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테마를 설정하였다.

포도테마 소권역은 크게 포도테마마을, 포도경관단지, 포도축제거리, 국도변을 활용한 포도산업 거점지로 각각 Zoning을 하였으며, 생태관광 소권역은 체류형 건강휴양마을, 운악산 생태회랑, 수변여가 및 생태, 문화거리로 각각 Zoning하였다. 이후 대상지의 각 권역별 기본구상을 종합하고, 운악산 포도향 권역의 종합구상안을 수립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농촌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마을 정체성을 도출한 결과들을 공간구상에 반영하는 과정과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농촌마을 개발 시 시설중심의 마을계획과 차별화된 자원 중심의 농촌마을계획 사례로써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이 쾌적한 생활주거 공간으로서, 다양한 향토자원의 중심공간으로서, 도시민의 휴양·관광공간으로서, 경관보전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등 다면적인 기능을 가진 삶의 공간으로 정

Figure 10 생태관광 소권역 공간구상도.

Figure 11 운악산 포도향 권역 종합구상도.

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권역단위의 계획형 연구로써 물리적 계획 외에도 인적자원계획, 관리·운영계획, 홍보·마케팅 계획, 공간별 세부계획요소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가 극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가평군, 2007, 2020년 가평군 기본계획.
2. 가평군, 2010, 경기 가평 포도향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구상(안). 한국농어촌공사.
3. 김현호, 한표환. 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4. 농림부, 2004, 농촌지역 향토산업 육성방안. 농어촌연구원.
5.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7, 지역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사례분석.
6. 반영운, 윤중석, 우혜미 등. 2010,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기반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종합계획 : 보은군 회인면 부수권역 ‘하얀민들레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2(4), 157-169.
7. 방한영, 2003,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
8. 신혜정, 2008,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향토·유통자원 특성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계획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안덕초, 2007, 장소 자산을 활용한 농촌관광마을축제 계획에 관한 연구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여화선, 김동찬, 김충희, 2008, 아산시 음봉면 농촌마을 조성 계획. 농촌계획, 14(3), 87-97.
11. 윤영운, 2006, 농촌휴양마을 조성계획 : 강원도 평창군 차항 2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한기, 박덕병, 박은식, 2002, 전통문화와 전통지식을 통한 농촌의 내생적 발전 요인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2(2), 51-71.

접 수 일: (2011년 6월 24일)

수 정 일: (1차: 2011년 7월 18일, 2차: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20일)

■ 3인 익명 심사필